

## 서울시, AI·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박차

## 4대 창업허브 중심 265억 투입... 800곳 육성

성장 잠재력 높은 10개국 선정  
AI 스타트업 해외진출 집중 지원  
후속지원 통해 실질적 성과 도모  
해외거점 늘리고 네트워크 강화

서울시는 국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올해 4대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 사업'에 총 265억원을 투입해 약 800개 기업을 선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체계적 창업지원을 위해 서울 전역에 총 23개의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공덕(로봇, AI 등 기술창업 전분야) ▲마곡(정보통신, 나노, 환경, 바이오) ▲성수(ESG) ▲창동(뉴미디어 및 글로벌 SNS 마케팅 등) 등 4개 창업허브는 해외진출 지원,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 고성장성(스케일업)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동력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특화 거점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 지원으로 지난해까지 총 907개 스타트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며, 투자유치 1827억원, 기업매출 2384억원, 해외 법인설립 117개사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 ◆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가속화

시는 기술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좁은 내수시장 한계를 넘어 해외로



서울창업허브 공덕 모습

/서울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약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주·유럽·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약 350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특히, 올해는 미래 첨단산업의 초점이 AI로 모인 상황에서 AI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AI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10개국을 선정해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추가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지원도 강화해 후속 투자유치, IPO(기업공개) 등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 해외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 확대

스페인,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독일,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 7개소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거점'도 8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현지 공공기관,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력하여 일본, 태국 등에 해외거점을 추가 구축하고 사무공간 제공, 법률·경영 컨설팅, 법인설립 등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현지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 혁신 기업들과 우리 스타트업의 산업협력도 추진한다. '창업허브 M+'와 EU Business Hub 프로그램 주관사인 '딜로이트 컨소시엄'과 협업을 통해 유럽 기업과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에

스토니아 탈린시를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하는 'Testbed in Tallinn'을 통해 유럽지역에서의 기술실증 기회도 확대한다.

CES, 슬러시(SLUSH) 등 해외 스타트업 행사와 교류를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통찰력은 물론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한다.

## ◆ 창업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 AI 등 미래산업 스타트업 발굴

시는 글로벌 협력과트너와 네트워크 강화, 외국인 창업자 유치, 글로벌 홍보 콘텐츠 강화 등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총 24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오는 9월 열리는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에브리씽'이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장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해외 유망기업의 서울 창업생태계 유입도 추진한다. 작년 태국 5개 기업에 대해 국내비자 제도 설명 및 창업 컨설팅과 MS 코리아와 밋업 등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태국, 독일 등 현지 거점 중심으로 Barter(바터) 프로그램을 신설, 해외 우수기업의 국내 유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4개 서울창업허브에서 올해 총 132개사의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허브별 특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건국대

졸업생 특화사업 선정  
700명 맞춤형 취업지원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졸업생과 졸업유예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연간 총 700명을 대상으로 ▲1:1 컨설팅 ▲멘토링 ▲자기주도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국대는 지난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시범 사업' 운영 대학으로 선정돼, 미취업 졸업생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취업 프로그램과 상담을 확대 운영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상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 청년들의 구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여 청년 취업을 제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 고양시

일산신도시 재건축  
주민 설문조사 진행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일산신도시 내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를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재건축을 앞둔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설문조사 응답률이 높을수록 보다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1일 '2024년도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일산신도시)'에 선정된 ▲백마마을 3·4·5·6단지 ▲후곡마을 1·2·5·6단지 ▲강선마을 15·16·17단지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개요 및 정비 방향을 안내하고, 주민 설문조사의 방법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핸드폰을 활용한 전자조사(QR코드)와 서면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지의 특성에 맞는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토지이용계획, 건물 배치계획, 사업성 분석, 추정분담금, 공공기여방안 등 다양한 요소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재건축 사업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안성기 기자 ask9990@



인하대와 중국 연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 과정 개막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 인하대-연태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양성

국제 고급 교육과정 공동개설  
한중 교류·협력 플랫폼 기대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중국 연태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1일 인하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최근 중국 연태대학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 과정 개막식을 열었다.

개막식에는 인하대 조명우 총장, 김웅희 대외부총장, 연태대 학서광 총장, 왕홍보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채규전 대우중공업 연태유한회사 전 법인장 및 사면공정기계유한회사 전 사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교류협회 회장, 조진훈 연태시 중일한연구원 부원장, 김정호 연태인상공회 회장 등 프로그램 강사진 및 한국과 중국의 리더급 참가생 약 50명이 함께했다.

이번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아카데미 과정은 인하대와 연태대가 공동

설한 국제 고급 교육과정이다. 한·중 양국 전문가, 학자, 기업인들이 강사진으로 구성돼 글로벌 경제 트렌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다문화 경영 전략 등을 교육이 이뤄진다.

중국 연태지역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거점 도시로, 풍부한 자원과 활발한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는 친외국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꼽힌다. 인하대는 이같은 환경을 고려해 지역의 대학인 중국 연태대와 이번 교육과정을 신설하게 됐다.

인하대는 지난 2011년 학생 교류·일반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연태대와 인연을 맺었다.

인하대는 이번 교육과정이 한중 각계 인사와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이 교류·협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개봉동 49번지 '신통' 확정  
35층 1360가구 대단지로

인근 개발 연계 순환교통 마련  
미래 개봉 생활권 핵심지 기대

매봉산 자락과 오류IC·남부순환로 등에 접한 교통의 요충지 '개봉동 49번지 일대'가 35층 내외, 1360여세대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향후 예정돼 있는 '신구로선'이 개통되면 '신(新)개봉 생활권' 중심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개봉동 4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역이 가진 교통·문화·자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변과의 조화로운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대상지가 미래 개봉 생활권의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화롭고 지역으로 열린 도시경관 창출 ▲지역 특성을 담은 특화 주거단지 조성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교통체계 개편 ▲다양한 동선 및 복합공간 계획으로 생활 편의 향상 등 개발계획에 4가지 원칙을 담았다.

특히 고척로·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여러 개발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대상지 북측 개봉동 20번지 일대 모아타운과 연결되는 남북 관통 도로를 계획하는 순환 교통체계를 마련하



매봉산 자락과 오류IC·남부순환로 등에 접한 교통의 요충지 '개봉동 49번지 일대'가 35층 내외, 1360여세대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

는 등 지역간 연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기로 했다.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 등 기반 시설 변화와 연계해 개봉동 일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매봉산, 개봉중학교, 저층주거지 등을 아우르는 개봉 생활권의 도시 체계에 어울리도록 영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신구로선' 역세권 예정지인 점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역세권 제2종 7층'에서 '3종'으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개봉동 49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